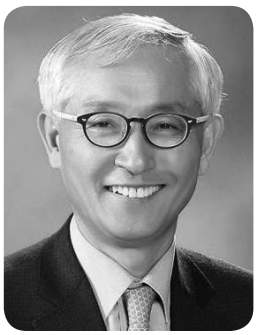
한 시간에 배우는 오종남의 경제 이야기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사람 중심 경영’을 하자”

오종남
서울대 과학기술혁신최고과정(SPARC) 명예주임교수



· 서울대 법대 법학사
·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MBA, 경제학 박사

· 제17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예산관리과장
· 재정경제원 법무담당관, 대외경제총괄과장
· 청와대 건설교통비서관, 재정경제비서관
· 제7대 통계청장
· IMF 상임이사
· 새만금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역임

·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자문위원
· Scranton Women’s Leadership Center 이사장
· 서울대 과학기술혁신최고과정(SPARC) (명예)주임교수
· 아시아발전재단(ADF) 이사

주변을 돌아보면 경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 어떻게 하면 경제 뉴스를 접할 때 정치, 사회, 문화처럼 친근하게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다소 과장 섞인 “한 시간에 배우는 오종남의 경제 이야기”라는 강의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경제 뉴스를 접할 때 좀 더 가깝게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제와 경제학

사전을 찾아보면 경제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 분배 ·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생각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퇴원하려면 원무과에 가서 퇴원증을 받아와야 한다. 부모님의 장례식 절차 또한 모두 돈이 들어가는 경제 활동이다.

한편, 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경제학을 어렵게 배운 추억 때문인지 “나는 경제는 잘 모르지만…”이라는 표현을 하곤 한다.

오늘은 ‘경제학’강의가 아니라 “경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강의를 할 생각이다. 물론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경제학 이론을 조금은 원용하겠지만 어려운 용어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경제 주체에 대하여

먼저 경제 행위를 하는 경제 주체를 살펴보자. 우선 개인은 소비하는 주체, 기업은 투자하는 주체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를 지키는 국방이나 도로, 항만 같은 인프라를 건설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치안 유지 등에 돈을 쓴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세입이라 하고 쓰는 일을 세출이라 하며 이 둘을 합해 예산이라고 한다.

이를 조금 더 부연하면 개인은 자영업자가 아니면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는 속칭 샐러리맨이다. 그리고 기업은 설비 투자를 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공급한다.

기업은 생산 주체(공급)이면서 설비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설비를 구입하는 소비 주체(수요)이기도 하다는 기업의 양면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일례로, 발전설비를 제작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업이 있을 때 비로소 발전설비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이치다.

이렇게 보면, 개인은 소비(C; Consumption), 기업은 투자(I; Investment), 정부는 재정 활동(G; Government)의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일감, 즉 수요라는 각도에서 이들의 합을 국내 수요(Domestic Demand) 혹은 내수라고 말한다. 여기에 수출에서 수입을 뺀 해외 수요(Overseas Demand=Export−Import)를 합하면 한 나라 경제의 전체 수요가 정리된다.

(지출국민소득) Y=C+I+G+(X−M)

세계 경제의 이해 : 수요 부족과 인기 영합(populism)

누군가가 커피숍을 낸다고 할 때 성공의 요체는 무엇일까? 온 손님 또 오면 된다. 손님이 커피를 많이 팔아 줄수록 매상이 올라가 월세도 내고 직원 월급도 주며 본인의 이익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조금 확대해보면 세계 경제도 쉽게 이해가 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감, 즉 수요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개인의 소비(C) 수요나 기업의 투자(I) 수요가 부족할 때 경기조절을 목적으로 거둬들인 세금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는 소위 '적자 재정'을 편성하게 된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때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한 뉴딜 정책은 수요 창출을 위해 적자 재정을 편성한 유명한 사례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소비나 투자가 과열되어 인플레가 걱정될 때 정부는 흑자 재정을 편성해서 경기 조절을 꾀할 수도 있다. 물론 최근처럼 세계가 수요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런 현상은 목격하기 어렵겠지만.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기준 이자율을 통해 경기를 조절한다. 수요가 적을 때는 이자율을 내려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물론, 제로(0%) 금리 시대인 요즘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여건이다 보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지낸 버냉키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QE)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 간단히 말하면, 돈을 찍어내서라도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원래 중앙은행의 주된 역할은 돈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화폐발행을 늘려서 오히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 조치를 경제학자들은 비전통적인 방식(nontraditional method)이라고 부른다.

또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는 어려움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인기영합주의(populism)다.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미국 이익 우선주의) 정책도 이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유지 비용 분담액이 영국이 누리는 혜택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탈퇴(Britain + Exit = BREXIT)를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이 또한 인기영합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해

1. 문재인 정부의 탄생 배경

한국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발전했으나 빈부 격차,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결과 자기가 기여한 만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는 "자살률, 특히 노인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라는 지표 하나만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실시된 5월 9일 임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했다.

2.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람을 생산 수단인 인적자원(human resource)으로 개발(교육)해서 이 정도까지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사람(human being)으로 존중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히 분배냐 성장이냐의 경제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3. 소득 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의 이해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왜 정책 패러다임이 '소득 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으로 바뀌었는지 수긍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최저 임금 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급 제도의 재검토, 근로 시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등이 '인간을 인간으로'대접받고자 하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4. 2018 경제 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18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 ①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 ② 혁신 성장, ③ 공정 경제로 되어 있다.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는 정권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예전에 없던 '혁신 성장'이 두 번째 꼭지로 새롭게 들어간 점이 대단히 흥미롭다. 다시 말해서 소득 주도 성장도 중요하지만, 혁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득 주도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다. 기업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소득 주도 성장도 공정 경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5. 거시 경제와 체감 경기의 괴리 현상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1%다. 당초 예상보다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경제가 좋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왜 그런 괴리가 생기는 것일까?

삶에만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 성장에도 질이 중요하다. 모든 부문이 골고루 성장하면 대다수 국민이 피부로 느낀다. 그런 걸 체감 경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특정 부문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경기 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 우리 산업의 주력 엔진이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마저 언제까지 지속 성장이 가능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이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다음 성장 엔진을 발굴하느냐가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라 할 것이다.

마무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경제 성장은 '큰 틀에서 본 나라 경제'이며 거시 경제다. 개개인은 먼저 자기 앞장을 가리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오는 6월 13일 지자체 선거까지는 모든 정책 결정에는 정치 논리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할 때 제안하고 싶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사람 중심 경영을!"

5월 31일 〈시사저널〉이 주관하는 '제6회 Good Company Conference'가 하얏트호텔에서 열린다. 거기서 '인적자원(human resource)에서 인간(human being)으로'라는 주제로 '사람에게 길을 묻다!'라는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제 경제 문제는 더 이상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 문제로 진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한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혼자서는 어렵고 결국 모두가 힘을 합해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다.

이 시점에서 외치고 싶다. "나라가 힘드니, 나라도 잘하자!"

끝으로, 조동화 시인의 시 한 수를 소개한다.

〈나 하나 꽃 피어〉

–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바뀌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바뀌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 본고는 KAIF가 주최한 제194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3.16.)에서 필자가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